찬란한 가야불교, 孝 정신 되새긴다

가야문화진흥원, 10월 5~7일 가야孝문화축제

찬란한 가야불교문화를 꽃 피웠던 김해에서 효 사상을 강조하며 행복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린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인해)은 10월 5~7일 김해 수릉원에서 '제2회 가야효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가야' '문화' '효' 세 가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불교 수행뿐 아니라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운 문화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가야 테마는 5일 오후 4시 국악공연에 이어 김수로왕과 허황후, 장유화상의 추모다례재를 올리는 식전행사로 문을 연다. 개회식은 오후 6시이며 통일을 주제로 힐링멘토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이 이어진다. 이후 김영임 명창의 특별공연과 가을 음악을 주제로 국립오페라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진다.

문화 테마는 6일 오전 10시 제1회 가야청소년 국악·민속 경연대회로 시작해 퓨전음악공연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오후 5시 가야문화중흥을 기원하며 금강경 독송과 1080배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김해 지역 스님들과 불자 1080명이 대거 참여해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김해 지역을 고려해 아시아 6개국 전통음식 축제도 연다.

효 테마는 7일 오전 10시 제1회 가야청소년 백일장 대회로 효 정신을 고취하고 김해시민과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및 점심 공양이 이어진다. 오후 3시에는 제1회 가야 '극 페스티벌'이 진행되며 불자들의 부모은중경 독송과 김준호와 손심심이 꾸미는 효콘서트 및 버꾸춤이 이어진다. 체험 부스에서는 △〈부모은중경〉 서각 및 인경 체험 △붓글씨·달마도 그리기 △단주·소원 팔찌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불교문화가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백제 선열들의 충정 새기자"

공주사암聯, 백제문화제 영산대재 성료



백제문화제 영산대재서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며 작법을 하고 있다.

공주시사암연합회(회장 중하)는 9월 17일 공주 신관둔치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제64회 백제문화제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공주시불자연합회가 진행을 맡은 행사에는 공주시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정진석 국회의원, 유병국 충남도의장, 김정섭 공주시장, 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 등 불자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영산대재는 식전행사 사물놀이 공연과 1부 법요식으로 문을 열었다. 사암연합회장 중하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백제문화제는 선열들의 충정을 배우고, 혼령들을 위로하는 문화제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불자들과 시민들은 백제문화제 영산대재의 의의를 바로 알고 후대에 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인간의 육신은 무상하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한다는 것이 진리인데, 무상한 육신으로 족적을 새기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삶일 것"이라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도 그 가르침이 법계에 살아있으며, 영산재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영원히 부처님 제자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축사에서 "영산대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복을 염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자리서 연합회는 이웃돕기 자비의 쌀 2,000kg을 공주시에 기탁했다.

2부는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는 영산대재가, 3부는 공주시사암연합회 합창단을 비롯해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소원지 달기, 풍등 올리기, 방생체험 등 각종 문화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이미경 충청지사장

佛畵의 매력, 강의서 '흠뻑' 빠지다

경상도 불화반 강좌 잇달아… 수시모집 인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화를 볼 때마다 신심이 난다는 A씨. 그는 얼마 전부터 지역사찰 불교대학 불화반에 들어가 부처님을 그리기 시작했고, 불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며 기뻐했다.

#불교를 믿진 않았지만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B씨. 불화반에 들어가 활동한지 1년이 지난 그는 현재 자신을 불자라고 소개한다.

경상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불화반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수준 높은 강의와 구체적인 실습 및 전시가 성공요인으로 작용, 지역포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양산과 대구 그리고 울산에서 불교회화특강 및 불화반 강좌가 열린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이하 경불대 불화반)은 '불화교실'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불광사에서 열고 있다. 경불대 불화반 강의는 본연(本然) 전연호 불모가 담당한다. 전연호 불모는 불화계 큰 거목이었던 불화장 제118호 석정(石鼎) 스님을 잇는 이수자이며, 불교미술일섭문도회 상임고문, 본연불화연구소장으로 불화를 알리고 가르치는데 매진하고 있다.

경불대 불화반은 21년 전 시작됐다. 이후 졸업한 제자들이 전문불화연구를 위해 '불교미술본연문도회'를 결성하고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2년마다 경불대 불화반과 함께 '불화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 중이다. 경불대 불교반은 기초부터 중급자까지 수업하며, 선배들이 함께 이끌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경불대 불화반에서 시작해 현재 왕성한 활동을 이어 가는 작가도 있다. 이문희, 조해종 불모가 '불교미술본연문도회' 출신이며 항상 경불대 불교반에서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후배 양성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대구·울산·양산 등 각 지역
사찰과 박물관서 자리 마련
불화교실·일반인 문화특강
"불교회화 이해 높이는 기회"

전연호 불모는 "불화는 기도이며 수행이다. 수행의 일환으로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에 노력과 재능이 진정한 불모로 성장시킨다"며 "수행과 함께 자신의 기도를 풀어낼 수 있는 불모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053)792-1353



경상도에서 불화의 이해를 돕고, 불화를 직접 배우는 강좌들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사진은 경북불교대학 불화반 수업 모습.

경남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지준)은 불화반 강좌를 열고 수시모집 중이다. 강의는 실습과 이론으로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통도사 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불화반은 통도사성보박물관이 개관한 1999년 4월 문을 열었다. 올해 19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조해종 불모가 강사로 활동한다. 조해종 불모는 전연호 작가를 사사했으며 석정(石鼎) 스님의 화법을 계승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통도사성보박물관 불화반은 "불화는 문화유산이면서 예술작품이기도 하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그 속에 불교의 이념과 사상을 쉽고 아름답게 그려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며 "불모의 길은 단순한 기술이나 기법의 습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과 인고를 감내하는 수행의 길"이라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10월 한 달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불교회화 주제 '10월 목요일문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강은 불교회화의 기원, 종류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강사는 김미경 문화재청 감정관이며 장소는 울산박물관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10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30분까지 총 4회 운영된다. 10월 4일 강의는 9시 30분에 시작된다. 교육인원은 4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울산박물관은 "일회성 강의가 아니라 4회의 특강을 통해 불교회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2)229-4731

"삼존불 조성 공덕, 지역사회 환원"

태학사, 청동삼존불 점안
10월 7일엔 산사음악회도





삼존불 점안식(사진 왼쪽)과 대웅전 현판식(사진 오른쪽)을 봉행한 천안 태학사.

천안 태학사(주지 법연)는 9월 15일 경내에서 석가모니불·약사여래불·관세음보살 청동삼존불 점안식 및 대웅전 현판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전국사찰 주지스님들과 지역단체장, 불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행사는 천안불교사암연합회장 일로 스님의 점안법문으로 시작됐다. 의식 집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이수자 스님들이 맡았다. 이어 태학사의 발자취를 연구한 엄기표 단국대 교수의 경과보고를 비롯해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과 태고종 세종충남교구 종무원장 법훈 스님, 용인불교사암연합회 도원 스님, 양승조 충남도지사, 윤일규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했다.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은 "석가보니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을 새로이 봉안하게 돼 모든 분들의 공덕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원력으로 어두운 그늘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태학사는 신라 흥덕왕 때 진산조사가 절 뒤 100m 바위에 마애불(보물 제407호)을 조성하고, 해선암(海仙庵)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그러다가 1931년 피폐한 해선암 절터 흔적과 덤불 속에서 마애불을 발견한 춘담 스님(1903~1994)은 해선암을 중창 불사해 1959년에 태학사로 개명했다.

태학사는 2대 회주 태광 스님 때 수행정진도량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 3대 주지 법연 스님에 이르러서는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도량으로 평가된다.

법연 스님은 동남경찰서 경승,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 원장, 천안불교사암연합회 총무국장, 무료급식봉사단체 마하이타 대표, 풍세면 주민자치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편 태학사는 10월 7일 오후 2시 제2회 천안시민과 함께 하는 태학산 자연휴양림, 태학사 산사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인기가수 진성이 출연하며, 지역 예술가들과 불자들 1천여 명이 산사음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미경 충청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